

당신이 만들 세상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당신이 만들 세상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발행인 _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발행일 _ 2011년 3월 5일

주소 _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56번지 2층

전화 _ 02 · 717 · 7999

홈페이지 _ <http://swc.jinbo.net>

이메일 _ swc@jinbo.net

후원계좌 _ 352-0136-9090-13(농협, 이경수)

차례

1

왜 사회주의인가 6

새천년 대한민국 7

한국만 예외인가 8

현 공황은 극복될 수 있을까 9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공황극복이 가능할까 11

만약 공황이 극복되면 삶은 나아질까 13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5

현 위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17

2

사회주의, 바로 이런 사회다 20

노동해방 사회 21

여성해방 · 인간해방 사회 23

인간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24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전지구’에서 만들어가는 사회	25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사회	26

3

사회주의, 가능한가 30

사회주의는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바꾸는 운동	31
인간본성을 볼 때, 사회주의 가능해?	32
사회주의 국가는 망했잖아?	33
‘사민주의’가 현실적이어야?	37

4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40

진보정당운동으로 오염된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는 운동	41
-------------------------------	----

민주노조운동과 현장조직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 4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과 전망을 주는 운동 45

5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바로 이런 당이다 48

노동자계급정당 49

사회주의 혁명 정당 50

여성 · 생태 · 소수자문제 해결을 자본주의 극복과 연결하는 정당 53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55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57

6

사노위와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에 함께 나서자 60



1

왜 사회주의인가

지금 자본주의는 대중수탈과 강화된 대중착취 없이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재앙인가? 자본주의 극복인가? 개량인가? 혁명인가?' 를...

그리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설 것인가를!

... 새천년 대한민국

“조끼에 머리띠 매고, 철야농성에 천막농성, 식발에 단식, 고공농성에 해외원정투쟁까지 300일, 400일, 600일을 넘어가는 노동자의 호소. 철로에 몸을 묶고, 한강 철교를 온 몸으로 건너야 하는 장애인. 탑 위에 올라 햇불로 보초를 서는 철거민. 일당 30만원에 고용된 조직폭력배들이 철거현장, 노동자 투쟁하는 공장, 노점상의 절구 앞에서 경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빨까지 근육이 박힌 아가리로 쏟아놓는 걸쭉한 욕설과 주먹세례. 그리로 분신, 분신, 분신... 냉소, 끔찍하다.”

이 뿐인가.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은 하루만에 주검이 되고, 생존권을 위해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음식물 차단, 단전단수 조치에 헬기까지 동원한 진압작전에 쓰러진다. 단속반의 추적 아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불태우고 가축을 살처분한다. 4대강이 마구 파헤쳐지고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자연이 마구잡이로 파괴된다.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일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있을 때 벌자'라며 장시간 고된 노동을 자청한다. 이미 노동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루살이 목숨이 되어 버렸다. 1년 1천만 원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의 길은 너무

도 좁다(올 초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하고, 취업준비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실제체감실업률은 27%에 달한다).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6.1%에 이르고, 한국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3/4분기에 전년보다 18.4%나 상승했지만, 1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에 이른다. 2010년 삼성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치인 37.64조 원과 10.11조 원이나 기록했지만, 삼성자본의 모르쇠 속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은 산재로 병들고 사망해 간다. 물가는 폭등 수준이다. 올 2월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8%나 올랐다. 전세난,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던 노동자민중은 이제 식비까지 줄여야 할 판이다.

...

한국만 예외인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날로 힘겨워지고 있다.

2008년 말 세계공황이 터지자 전세계 모든 자본가계급과 정권은 파국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 살리기 자금을 쏟아 붓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나섰다. 특히 미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른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그런데 이 막

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노동자민중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에서 나와야 한다. 결국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수탈당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노동자민중의 실질소득 감소나 실생활 개선없는 생활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국의 달러 마구 풀기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달러과잉으로 인한 투기로 국제적으로 원자재와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막대한 유동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자산거품을 만들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통한 자본 살리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세계 곳곳에서 각국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 복지 감축과 긴축재정, 구조조정 본격화’가 그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공황 극복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복지축소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이에 맞선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자본주의는 ‘대중수탈’과 ‘강화된 대중착취’ 없이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

현 공황은 극복될 수 있을까



지배계급들은 공황의 불길을 끄느라 허둥대고 있지만 허둥대면 될 수록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만치 않다.

미국은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개입으로 대과국을 모면한 듯 보이지만, 이는 국가 재정위기와 물가폭등이라는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다. 몇몇 신흥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경제회복 정도도 미미하다. 높은 실업률은 낮아질 줄 모른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일어나거나 국가부도가 예상되는 나라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공황이 경기순환상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고도성장을 했지만 1970년대 초부터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다. 전세계 자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1990년대에 걸쳐 신자본주의를 적극 도입, 추진했다. 노동자 쥐어짜기와 거품경제로 세계경제가 회복된 듯 보이자, 전세계 자본



가들은 '신경제(신자유주의)가 경제위기를 종식시켰으니, 이제 위기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신경제의 효과도 오래 가지 못했다. 2008년 말 세계공황이 터지면서, 신경제(신자유주의)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지배계급이 혼비백산하며 공황의 불길을 끄느라 허둥대고 있지만, 공황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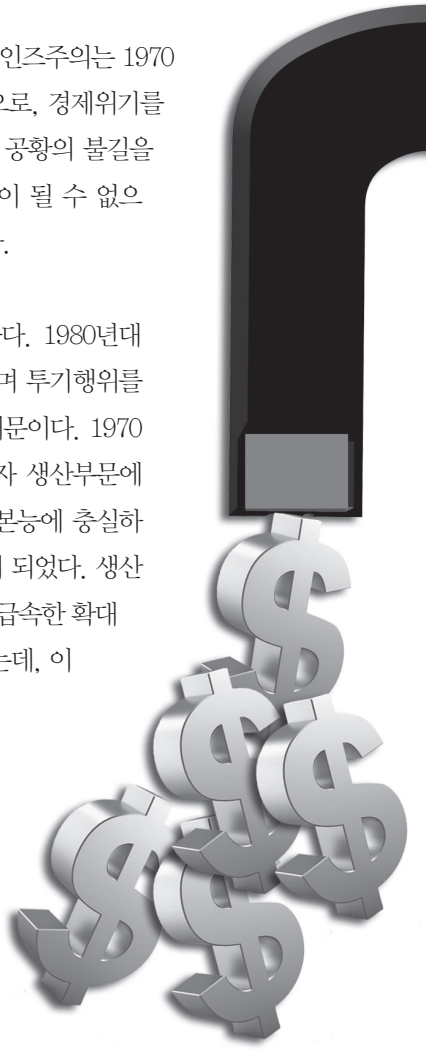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공황극복이 가능할까

공황이 터지자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면 안되고 시장만이 살 길'이라던 전세계 자본가들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실제 국가개입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이른바 '케인

즈주의'가 새로운 버전으로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인 자본의 처방으로, 경제위기를 잡기는커녕 물가상승만 불러왔다. 최근의 국가개입이 공황의 불길을 끄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의 특효약이 될 수 없으며, 자본을 위한 대중수탈에 다름아남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본 통제’로 현 위기를 극복할 리도 만무하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전세계를 넘나들며 투기행위를 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이후 이윤율이 저하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자 생산부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은 이윤을 쫓는 자본의 본능에 충실하게 전세계를 무대로 도박판을 벌이는 금융(투기)자본이 되었다. 생산부문에서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켜줄 생산과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없는 한, 금융자본을 생산부문으로 끌어들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게 현 자본주의의 상태다.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모두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 폭발인 공황(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다. 평화롭고 순탄한 위기 극복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자본은 국제공조의 외양 아래 환율, 기축통화, 새로운 성장동력과 상품시장 확보, 에너지와 자원 확



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과 같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 제국주의 국가의 주변부 국가에 대한 위기전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위기가 격화되면 필수룩 전쟁 발발의 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

만약 공황이 극복되면 삶은 나아질까

아니다.

최근 세계공황이 터지기 전에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리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삶은 힘들어졌다.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조차 점점 더 건디기 힘들고 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됐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초에 경제위기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경기가 회복됐어도 일자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았다. 유럽대륙의 경제는 10%에 이르는 실업률을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국민의 90%가 지난 30년간 생활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절반 정도의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 보통 남성노동자가 한 해에 160시간을 더 일했는데도 말이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한 해 평균 200시간이나 더 일한다. 독일에서는 실업자 500만명의 실업급여가 깎여나갔다.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이 다섯 명당 한 명꼴로 실업상태인데, 나머지도 불안정한 맥잡(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저임금 일자리)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런던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가난 속에서 자란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2000년대 초 중동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년 전보다 낮아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생활수준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매일 같이 수억 명이 하루 권장 열량 2000칼로리를 섭취하기도 힘들다”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의 침략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6년 동안 총 10만9천 명이 사망했다. 이 중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가 60%를 넘게 차지해 하루에 31명씩 죽어나갔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파병군에 의한 고문과 즉결처분 등 전쟁범죄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략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침략 전쟁의 이유는 하나다. 석유자원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려는 것, 즉 자본주의가 낳은 산물인 제국주의 패권전략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위기들—생물종의 멸종, 해양자원의 급



빈곤, 전쟁, 에너지 고갈과 환경파괴... 자본주의의 끝은 공멸이다

속한 고갈, 사막화, 산림남벌, 대기오염, 토양 황폐화, 머지 않아 도달하게 될 석유생산의 정점(과 이로 인한 새로운 지적학적 긴장), 만성적인 식량부족-도 지구와 지구의 생태계가 폭발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이내에 근본적인 에너지 경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현존하는 동식물종의 1/3과 인류 가운데 수백만의 취약집단이 소멸의 위협을 맞게 될 것이다”

인류와 모든 동식물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생태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체제’를 강요하면서, 노동의 소외(노동착취)와 자연의 소외(자연 착취)를 결합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때문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거대한 민중항쟁

...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공황 전부터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은 자본에 맞선 저항에 나섰다. 1999년 11월 시애틀의 WTO 반대회담에서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

1

로건이 온 세계로 퍼져갔다. 2003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맞서 전세계적인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민중 봉기와 저항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좌파정권이 잇달아 들어섰다.

2008년 말 경제공황이 전세계를 덮치자,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새롭게 분출하고 있다.

공황 직후 서유럽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에 나섰다. 그리스, 아일랜드에서 대정부 항쟁이 폭발했다. 2010년 들어서는 재정위기를 복지삭감과 긴축재정으로 돌파하려는 유럽의 각국 정부에 맞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이 투쟁으로 맞섰다.

2011년 초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민중봉기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튀니지 혁명에서 시작된 봉기는 이집트 노동자민중의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지더니, 이제 바레인, 예멘, 리비아, 이란 등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로 빈곤이 확대된 상태에서, 공황 이후 미국의 달러풀기로 인한 세계식량 가격 폭등의 포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결과물인 대중 삶의 파탄이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만과 연결되면서 거대한 민중항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도 수만명의 이집트 노동자들은 군사위원회 의 투쟁 자제 호소를 무시하고 파업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금



세계공황이 불러온 삶의 파탄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문제시해야 한다
(피에르 베르나르 | <컨트라스트>)

인상, 노동조건 개선, 부패 관료 추방, 친자본적 어용노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 물결은 독재정권 타도에도 중단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

...

현 위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1

이 투쟁들은 아직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을 목표로 한 투쟁은 아니다. 그러나 20~3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대와 미국발 세계공황이 불러온 삶의 파탄은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고 거대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자에게 위기 해결을 맡길 것인가? 우리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 경제위기와 삶의 고통을 끝장낼 것인가?

빈곤, 전쟁, 생태파괴를 불러오는 자본주의를 인정할 것인가? 인간과 자연을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재앙인가? 자본주의 극복인가?

답은 후자다.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한다.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 새로운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다.



2

사회주의, 바로 이런 사회다

자본과 임노동관계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노동자민중의 계획과 통제, 노동해방,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사회, 전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어떤 계급도 착취도 억압도 없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 자신의 자치권력,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 민중 자신이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이윤이 아니라 오직 인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소
비를 계획하는 것, 자본-임노동이라는 계급관계 자체를 철폐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차이에 따른 억압을 없애는 것, 그래서 평등하
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노동하는 동지관계로 현장과 지역, 나아가 인류
사회 전체에서 전환하는 것.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착취와 수탈과 억압과 차
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지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직접 일하는 사람이 직접 계획
하고 결정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다.

...

노동해방 사회

노동해방은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뽑아내는 것, 즉 노동착취를 없애는 사회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불안, 비정규직, 실업, 빈곤,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위험한 작업환경 방지를 통해 고되고 위험한 노동에서 벗어나며, 해고



노동해방은 노동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도 비정규직도 없는 사회다.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노동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다.

노동자 뿐 아니라 맘흘려 일하는 모든 민중들이 더 이상 자본에 수탈당하거나 자신의 일터와 집에서 자본의 탐욕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다.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교육(보육), 의료, 주택, 생활 필수재화를 국가(사회)가 책임지고 최대한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든 노동자민중이 질병, 상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다.

2

이를 위해 소수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공유제’로 바꾸고,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산’으로 생산의 목표를 바꾼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전문경영인이나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극복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민중이 경제운영을 집단적·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한다.

...

여성해방 · 인간해방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는다. 출산 · 가사 · 육아 · 돌봄노동(재생산 노동)이 여성만이 해야 할 일로 취급받지 않는다. 재생산노동을 사회가 책임지고 여남이 같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한다. 재생산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만든다.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 · 국가 · 상업적 폭력은 모두 금지되며, 모든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여성이 해방되는 사회’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용, 교육, 자녀 양육, 결혼에서의 모든 차별과 탄압을 폐지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이 없는 한, 성적 지향은 민주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배제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가 사회적으로 제공된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 청소년과 노인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경제, 정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앤다.

즉 성 차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차이, 장애 유무, 인종과 국적의 차이, 나이 차이가 차별과 억압,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다. 오히려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차이가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연대적인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다.

...

인간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망가진 자연을 되살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은 최소한으로 쓰고 불필요한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와 더불어 땅을 일구는 농민이 칭송받는 곳이다. 집 앞을 걸으면 어디에나 풀밭이 펼쳐져 있고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가면 야생동물을 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지구가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수탈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공생하는 사회다.

2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수탈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사회주의만이 가능하다



사회주의는 유전자조작 식품, 광우병 쇠고기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을 금지시킨다.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이 된 농업생산방식을 유기농업으로 바꾸나간다. 도시와 농촌의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생태순환적으로 관계맺도록 한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현재의 화석에너지체제를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체제로 바꾸나간다. ‘더많은 생산, 더많은 노동, 더많은 소비’라는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운영 원리를 없애나가고, ‘인간은 자연(지구)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원리가 경제활동과 삶의 양식,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자리잡도록 한다.

...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전지구’에서 만들어가는 사회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 강대국의 약소국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 폭력과 억압은 사회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전세계의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한다. 생화학 무기 ·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전쟁놀이를 즐기는 것 역시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다. 지구의 한 편에서는 비만이 문제가 되고,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이 문제가 되는 지구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선진국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기후변화를 불러와 가뭄으로 후진국의 노동자민중이 기아에 빠지는 세계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세계가 아니다.

‘전사회구성원은 누구나 평등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어떤 계급도 착취도 억압도 없다’는 사회주의 원리를 국제질서의 원리로 확장한다. 즉 사회주의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한 나라에서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에서 만들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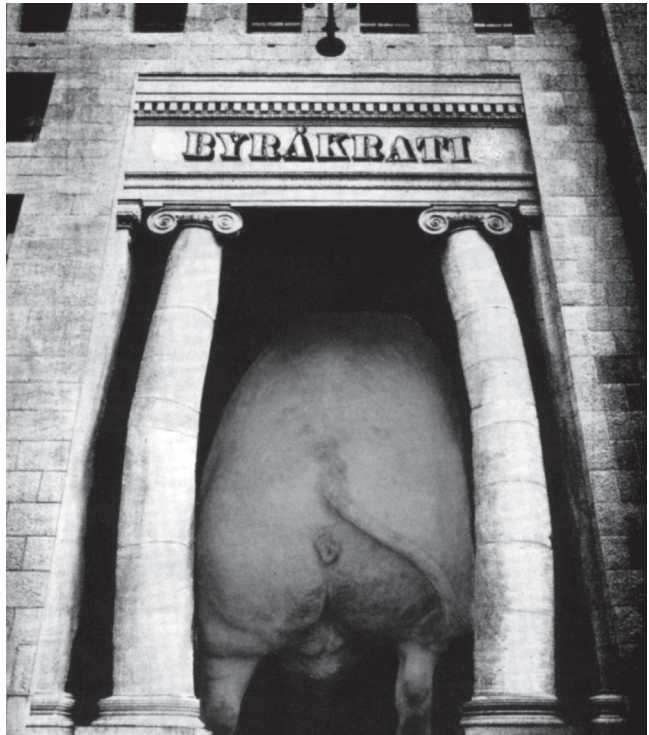
...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사회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만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과 군대로 짜여진 자본의 막강한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권력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국가기구들이 그대로 있는한, 노동자계급은 국가권력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좌우하는 관료층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자 권력이다」(크리스티안 테일러, 『관료정권』)



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권력은 선거 때만 정치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부르주아 정치와 다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다. 즉 소수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정치체제'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정책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게 모든 정보는 공개된다. 입법과 행정을 통일시키고, 모든 관직에 선출제를 도입하며, 관직 소환권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받도록 한다. 이로써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좌우하는 관료층이 생기는 것을 막아낸다.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자치조직 결성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노동자민중의 자치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며, 지배계급을 위한 억압기관으로 탄생한 국가가 소멸되는 과정이다. 노동자민중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나가는 것과 비례해 국가는 사멸해 나갈 것이다.



3

사회주의, 가능한가

사회주의야말로 지금 인류가 이룩한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가장 걸맞는 체제다. 사회주의야말로 이 숨막힐 듯한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꾸는 필연적인 운동이다. 사회주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다.

...

사회주의는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바꾸는 운동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나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적인 운동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민중이 발 딛고 있는 이 숨막힐 듯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모순, 자본주의가 확대·강화시킨 모순들을 없애는 운동 그 자체다. 그래서 필연적인 운동이고 정당한 운동이다.

“사실 ‘사회주의’야말로 지금 인류가 이룩한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가장 걸맞는 체제이다.

가장 ‘정상’인 사회이다. ‘정상’인 사회를 ‘비정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인 사회를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한편에서는 돈이 넘쳐 흥청망청 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고용불안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회가 어떻게 ‘정상’인가? 한편에서는 실업자는 넘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에 치져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사회가 진정 ‘정상’적인 사회인가? 주식과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서, 직접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휘청거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가 어떻게 ‘정상’인가? 만인을 시장경쟁으로 내몰고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사

회가 어떻게 ‘정상’인가? 돈 없으면 제대로 교육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무모한 전쟁터로 내모는 사회가 어떻게…”

...

인간본성을 볼 때, 사회주의 가능해?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 탐욕 등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들 한다.

이기심, 경쟁, 탐욕은 어디서 오는가?

이는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경쟁논리와 이윤논리와 자본(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는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계급사회가 그러하듯이 자본주의는 자연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산물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나뉘진다’는 생각(신분제)이 옛날엔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특수하고 한시적인 사회가 생겨나는 것이지, 만고불변의 영원한 사회는 없다.

누구는 원시공산제 사회는 잉여생산물이 없어 평등하게 살았지만, 잉여생산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잉여생산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계급사회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본주의가 발전시켜온 거대한 생산력으로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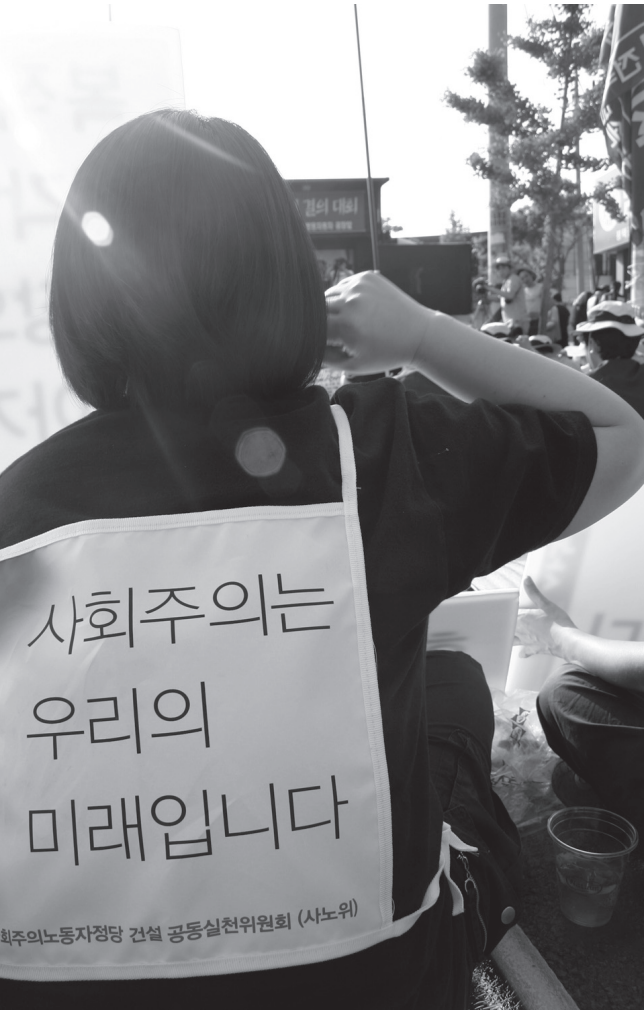
이기심, 경쟁,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 결과물이다

마련되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 자본이 없어지고, 축적을 위한 축적이 없어지고, 시장을 통한 경쟁논리가 없어진다면, 자본주의 아래서 자연스런 인간본성과 사회원리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연대원리로 사회의 모든 운영원리를 재조직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로 이를 파괴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생겨날 가능성을 막아낸다면, 이기심 · 경쟁 · 지배 · 계급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

사회주의 국가는 망했잖아?



사회주의는 바로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의 운동이자 미래를 만드는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것을 보고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말은 맞는가?

1917년 러시아의 노동자혁명으로 소련은 탄생했다. 러시아의 노동자, 병사, 농민들은 자본가와 지주, 부르주아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소비에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소비에트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자국가를 역사상 처음으로 세웠다. 그러나 유럽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로 인한 고립, 제국주의국가의 침략전쟁과 옛 지배계급의 저항으로 인한 내전, 이로 인한 생산력의 파괴 및 낮은 생산력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 난관 속에서 소련 공산당은 ‘한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은 가능하다’는 ‘일국사회주의론’이 굳어졌고,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적인 농업집산화 및 급속한 중화학공업 발전정책을 통해 서구자본주의를 따라잡으려 했다. 내전시기에 반혁명운동 분쇄라는 명목으로 취해졌던 일시적인 정치적 자유 제약과 공산당 일당체제가 내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굳어졌다. 동시에 소비에트 민주주의(노동자 민주주의)는 공산당 독재로 변질되었고, 생산에 대한 노동자 자주권리는 국가관료층의 명령경제로 변질되면서, 당·국가 관료층이 지배계급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사회’인 사회주의는 소련사회에 실현되지 못하였고, 결국 붕괴되었다.

‘소련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 내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것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사노위) 내에도 이견이 있다. 소련은 국가관료층이 자본가계급이 되고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임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국가자본주의’ 입장이 있다. 또는 관료집단이 노동자민주주의를 박탈했음에도 생산수단의 사회화(자본가계급의 사적 소유 철폐)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자본주의가 아닌 ‘타락한 노동자국가’로 보는 관점이 있다. ‘국가(당) 주도의 사회주의 건설 실험’과 ‘생산력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탈, 실패했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일국사회주의론이 문제라는 점,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사회’가 소련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른바 ‘주체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 역시 소련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극단의 형태로 나타난 사회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소련사회와 똑같은 것이니, 사회주의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는 사회주의운동을 두려워하는 전세계 부르주아들이 떠들어대는 말로 이들이 쌍수들어 반길 말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사회주의국가를 대표했던 소련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보고, 20세기에 전개된 사회주의운동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면서 과거 경험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착목 속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운동은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적인 운동’이

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없어지거나 포기될 수 없다.

...

‘사민주의’가 현실적이어야?

누구는 말한다. ‘사회주의는 비현실적이고 사민주의가 대안이다’

아니다. 사민주의는 결코 노동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사민주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전략(의회주의)’을 추진했다. 그런데 사민주의가 의회주의 전략을 취해 나가자, 사민주의 정당은 한국의 진보정당들과 똑같이 선거에서 다수표 획득을 위해 점점 계급성을 상실해 갔다. 나중에는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즉 자본가계급의 소유를 문제삼지 않은 채,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노선으로 나가면서 개량주의 노선을 노골화했다.

그 결과 사민주의는 선거를 통해 집권해도 사회주의를 단 한군데서도 건설하지 못했다. 의회의 다수 또는 행정부의 꼭대기를 차지해도, 지배계급의 저항과 사보타지, 혹은 쿠데타를 막아낼 수 없었으며, 그럴 의지도 없었다. 경제의 주요 생산수단은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것이었다. 또한 당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낳아,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도 못했다.



인간의 인본주의를 실현한 자본주의는 대중기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중심으로 건설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사민주의의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특수한 '경제정치적 조건'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전쟁 직후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투쟁이 분출되고, 세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황금기(급속한 경제성장기)였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장기침체가 빠지자,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위협받았고, 사민주의 정당들도 변했다. 노동자의 열망을 받아 1970~90년대 집권한 각국 사민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고자,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엮고 임금삭감(억제), 복지축소 등에 앞장섰다. 게다가 복지국가 전성기인 1970년대 초에도 사민주의는 빈곤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다. 독일 3%, 프랑스 16%에 이르는 빈곤 인구가 말해주듯이.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을 없애는

운동이 아니다. 시민주의가 이뤄놓은 최대성과인 복지국가도 자본주의 장기호황이라는 경제적 조건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공황으로 자본이 위기에 빠지고, 노동에 대한 강화된 수탈과 착취 없이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시민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대중기만’이다.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를 철폐할 의지와 힘을 보인다면, 오히려 사회주의가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4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은 노동자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운동이다. 관료주의, 개량주의 노동운동을 아래로부터 재편하는 운동이다. 동시에 투쟁하는 노동자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는 당이다. 그러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 지금부터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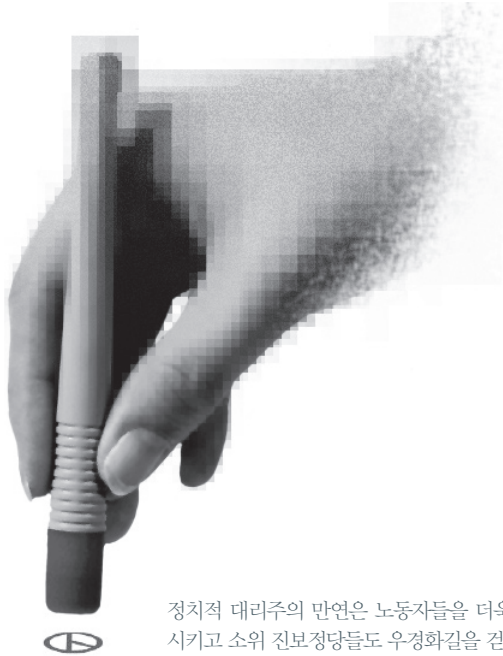
빈곤,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 전쟁, 생태파괴를 근원에서 없애는 길은 사회주의 건설이라 할 때, 이를 목표로 활동하는 조직, 즉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만으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은 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운동의 현주소를 보더라도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

진보정당운동으로 오염된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는 운동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오랜 굴종과 침묵을 뚫고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건설하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운동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투쟁과정에서 부르주아 정당(보수야당)에 기대거나 이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서야 함을 인식했다. 그 결과 96·97총파업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당면 과제로 외쳐졌고 그 염원 아래, 민주노동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를 더럽혔다. 비정규입법 수정안 제출,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연대전략 제출, 2007년 대선 시기 기만적인 노사정합의 주체인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발언 등 한노동자적 작태를 연발했다. 노동자정치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과 등치시키는 의회주의로 인해, 정치적 대리주의를 만연시키고 조합원(당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 대는’ 동원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정치적 대리주의 만연은 노동자들을 더욱 탈정치화시키고 소위 진보정당들도 우경화길을 걷게 만든다

민주노동당과 분당과정에서 탄생한 진보신당도 다를 바 없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 강령에 문구나마 남아있는 사회주의 지향마저 삭제해 버렸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두 진보정당의 노동자 배신행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자본가정당인 야당들과 선거협상을 벌이거나 연대하더니, 2012년 총대선에서도 진보대통합 및 반MB민주대연합을 추진하면서, 자본가정당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결정적 배신행위로 나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 투쟁에서 자본가정당이나 시민단체와 다를

4

바 없는 ‘중재정치’를 일삼아 성과없이 투쟁이 중단되는데 일조했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은 위와 같이 진보정당운동(진보정치)으로 더럽혀지고 왜곡된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부의 출세 통로로 전락한 진보정치로 인해 현장에 널리 퍼진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운동이다.

...

민주노조운동과 현장조직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은 위기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해방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 아래 연대해왔던 원칙은 비정규직 확산 등 자본의 노동자 분할전략에 휘둘리면서 무너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정치문제에 대해 전체 민중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모습도 잃어가고 있다. 현장조직 역시 노조 집행부 장악을 위한 선거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지 오래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대중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대중투쟁을 억누르고 관리·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료주의 문제도 심각하다.

96·97총파업 때 외쳐졌던 ‘산별노조 건설-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한’ 산별노조운동-진보정당운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업별노조를 산별노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질서를 바꿀별 대안지도력 형성이 가능하다. (양영근 - 동지가 정치의 주체다)

조로 바꾸는 조직형식의 전환만으로, 노동자정치를 진보정치로 대체한 진보 정당운동으로는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망을 찾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적 지도력과 진보정당의 개량주의적 지도력으로는 노동운동의 현 위기를 돌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도력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기의 해법을 찾을 때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운동의 지향과 목표가 무엇이나?' 를 다시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의 이해 실현만 관심을 두고 노동자 연대를 등한시하며 정치투쟁을 외면하는 '조합주의', 전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중연대투쟁에 나서지 않는 '협소한 노동자주의', 야합과 절충으로 투쟁을 마무리하려는 '투쟁회피주의' 를 극복해야 한다. 운동의 목표와 정치적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현장파·좌파' 라는 애매한 정체성으로는 운동의 전망을 움켜질 수 없다. 노동조합운동에 갇힌 활동, 현장조직운동에 머무르는 활동으로는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 진보정당운동의 배신행위를 방조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철폐·사회주의 건설을 노동자계급운동의 목표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자본의 노동자분할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투쟁을 회피하지 않고 대중의 고통을 강력한 투쟁으로 조직하려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의 지도계급으로서 나가는 활동을 일관되게 벌일 부대(조직)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관료주의적·개량주의적 지도력을 대체하는 '대안지도력' 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통해 이를 세워내야 한다.

...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과 전망을 주는 운동

자본주의 병폐와 경제공황의 여파가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의 확대 추진, FTA의 확대 추진, 4대강 삽질 등 노동자민중의 고향을 더욱 짜내려는 자본과 정권의 비열한 작태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죽이기 공격이 법·제도 개악, 물리적 탄압, 언론 장악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대중의 고통과 시름이 가슴 깊숙이 쌓이고, 고통과 시름이 분노로 바뀌며, 이 분노에 불을 당겨줄 계기가 생기면, 2007년 촛불항쟁과 같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자발적인 저항이 한국사회에서도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대중투쟁이 자본가정당이나 진보정당운동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확대·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대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투쟁의 전망과 목표를 보여주고,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5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바로 이런 당이다

노동자계급정당, 의회주의-수권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여성생태소수자문제와 운동을 사회주의 전망으로 결합,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노선을 견지하고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적 정당.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2010년 5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사노위)가 출범했다. 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노동자계급 해방세상을 가져올 사회주의 혁명정당 ‘추진위’를 건설하고자 깃발을 들었다. 지금 당건설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과 정치조직에 속하지 않았지만 당 건설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먼저 결집했다.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

노동자계급정당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대립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운동에서 계급모순의 일차적 해결 주체는 노동자계급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의 주축도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당은 그 당이 ‘어떤 계급의 이해를 위해 활동하느냐’에 따라 기본 성격이 달라진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당이 노동자계급성을 유지하고, 노동자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동자계급이 당의 구성에서 다수를 이루는 당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계급이라는 객관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객관적 위치가 실제적인 역할로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노동자 분할공세를 뚫고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임금노예의 굴종을 박차고 세계를 변혁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통일·단결시키는 당이다.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세워내는데 모든 활동을 집중하는 당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투쟁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하고, 노동 현장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현장·지역·전국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당이다.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함을 뜻한다”

당의 계급성은 ‘협소한 노동자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며,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민중의 이해를 위해 싸운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안고 싸울 수 있는 계급적 감수성과 헤게모니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한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전체 민중의 전위에 서서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주체로 서나가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

사회주의 혁명 정당

자본주의 안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개량주의’, 민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 운동을 시작하자
(조나단 보틀스키 만지질하는 사람)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노동자투쟁을 통일과 반미투쟁으로 왜곡시키는 ‘민족주의’ 정치를 반대한다. 이름 그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한다. 동시에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을 모호하게 집결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전술 원칙, 조직활동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을 통해 건설하는 당이다.

“의회주의 · 수권주의를 거부하는 혁명정당”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

사민주의 정당의 경험이 그러했듯이, 의회나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었다. 노동자계급정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해도,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가계급의 경제지배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노동자계급이 원하는 혁명은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5

노동자정당은 의회를 통해(의회주의), 당이 권력을 인수받는 것(수권주의)를 거부하는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직접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은 그 어떤 집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은 창발성을 발휘하며, 투쟁기관이자 자치권력(및 그 맹아)을 만들어냈다. 1871년 프랑스의 파리코뮌,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 1936년 스페인의 ‘노동자민병대’, 1968년 프랑스의 ‘파업위원회’, 1972년 칠레의 코르돈 등이 그 사례다.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활동 목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발전시키며, 그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것을 활동의 중심에 둔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선거나 의회활동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사회주의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주체화와 대중투쟁의 강화를 위해 선거나 의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진보정당처럼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여성 · 생태 · 소수자문제 해결을 자본주의 극복과 연결하는 정당



사회주의는 노동해방사회이자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사회다

“사회주의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생태, 소수자 문제 포괄”
“무지개 좌파연합당 거부”

사회주의는 ‘노동해방’ 사회이자 ‘인간해방’ 세상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 하는 사회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 차별, 배제받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과 노인들의 해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다. 이들을 시혜대상이 아닌 동지로, 주체로 바라보고 함께 실천한다.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성, 비장애인 중심성, 민족주의·인종주의, 연령주의 등에 맞서 싸워 나가고, 정치·경제·사회·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운다. 자연을 파괴하는 각종 개발주의와 국가와 자본의 자연파괴행위에 맞서 싸운다.

그리고 이 투쟁들을 자본주의 철폐·사회주의 건설의 지향 속에서 결합

시킨다. 여성, 생태, 소수자운동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조합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전망 아래 결합시켜 나간다. 더불어 노동자계급운동이 여성·소수자·생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나가도록 활동한다. 이를 통해 여성·생태·소수자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과 노동자계급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를 위한 첫 출발로 '당 안'에서부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며, 그들 스스로 주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고통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해방운동과 노동운동의 핵심주체로 세워낸다. 변혁적 생태운동을 형성하거나 연대하며, 생태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실천을 마련해 갈 것이다.

...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일국(민족)경제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한 단위로 깊숙이 편입되었다. 그래서 일국의 자급자족 경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사회주의혁명이 전세계 사회주의 혁명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한다.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구호



노동자국제주의와 세계혁명노선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일관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수준이 아니라, 급박한 '현실' 문제가 되었다.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 노동자들을 '바다를 향한 경주' (공장폐쇄와 자본철수로 위협하면서 전세계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면서 경쟁시키는 것)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이 신흥공업국에 진출하면서 가혹한 노동착취를 일삼고, 한국정권이 미제국주의에 협력해 해외파병을 자행하는 등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도 급증하고 있다.

5

이런 변화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전세계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맞서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한 국가본과 정권의 타국(및 타국 노동자)에 대한 전쟁 동참과 가혹한 착취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경쟁상대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시혜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은 노동자계급으로서 연대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대공황 이후 각국 자본가정권은 국제공조를 통해, 노동자민중을 희생시켜 경제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이후 경제위기가 격화되면 될수록 자본과 정권은 국가주의·경쟁력 강화란 기치 아래, 전세계 노동자민중을 대립시키면서 수탈과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국제주의는 중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노선을 모든 활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 아래 같이 투쟁하고,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당원이 당 기구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하고, 당 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당원’은 반드시 당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한다.

당의 노선과 활동방침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집행만 하는 수동적인 당원으로 구성되는 당이 아니다. 회비만 내거나 선거 때만 몸대는 진보정당류의 폐이 퍼당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당원은 당의 노선과 활동방침을 결정하며, 집행해 나간다. 그래서 당원은 당활동의 주인이 된다.

당은 민주주의(민주)로 운영된다. 민주주의에 기초해 통일되고 집중된 활동(집중)을 벌인다. '민주' (민주주의)없는 '집중' (통일되고 집중된 실천)도, '집중' 없는 '민주'도 불완전하다. 민주가 완전히 보장되어야만 집중이 가능하며, 집중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리 당의 방침이 올바르다 해도 당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아무리 보장해도 당원이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들이 민주적 참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나가도록 힘쓴다. 그리고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당 내 지위와 체계가 위계화·관료화·권력화되지 않도록 한다.

민주적 정당은 당이 계급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끊임없이 정확하고 교정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당의 민주적 생명력과 활력이란 단지 조직 내부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이 계급대중과의 관계에서 노동자민중이 처한 구체적인 요구와 현실을 당 내부로 환류시켜내고, 계급대중의 현실과 호흡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의 방침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계급대중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되기 때문이다”



6

사노위와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에 함께 나서자

사노위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계급 해방세상 건설을 위한 혁명정당 건설에 나섰다. 노동자계급의 가슴속에 '노동자권력'의 열망을 다시 불 지필 당건설운동, 우리와 함께 나서자.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며 좋겠다!”

그러나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다 맛이 가버렸어”

그러나 제대로 된 노동자정치를 하는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이 필요하며 직접 나서는 사람은 아직 적다.

“민주노조운동도 전망이 없고, 현장조직운동도 선거조직으로 전락했어.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 전망 찾기의 지렛대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직 소수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탄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한국전쟁(6.25전쟁)이 가져온 레드컴플렉스든, 망한 사회주의국가 건설 실험이 미친 여파든, 민주노조운동과 현장조직운동의 침체와 위기가 가져온 피로감 때문이든,

그러나 언제나 모든 운동은 먼저 자각하고 결의한 자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이든, 현장조직운동이든, 모든 운동이 그랬다.

사회주의 정당운동도 마찬가지다.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운동을 출발시켜야 한다. ‘올바른 계급적 입장, 헌신성, 대중과의 결합 능력’을 통해 다수의 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소수지만,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사노위)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 건설’의 한 주체로 나섰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는 역사적인 출발을 벅찬 가슴으로 온 세상에 선언한다. 사노위는 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노동자계급 해방세상을 가져올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뿌리 뽑는 평등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바로 지금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건설에 착수하고자 한다.

사노위의 출범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이 땅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위대한 도정에 함께 해 온 남한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로 왜곡 후퇴시킨 진보정당 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이 땅에 기필코 세울 것이다. 우리는 사노위의 출범이 노동자계급의 가슴 속에 노동자권력을 향한 열망을 다시 불 지필 참된 희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내는 당 건설운동을 전개하자

우리의 결의는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운동 속에서 대담하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주의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진 노동자들이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조합주의에 갇혀 있기를 강요받아 온 그 동안의 상황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 당 운동을 전면화 시켜내지 못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사노위의 출범은 사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협소한 씨름의 자족적 울타리에 갇혀 지내거나 대중조직과 노동조합운동 뒤에 자신을 숨기고서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확

실한 단절을 이뤄내고 새로운 당 운동의 단계를 열어젖히겠다는 결연한 각오다.”(사노위 출범 선언문 중)

동지들의 결의와 참여 하나하나가 소수를 ‘다수’로 만드는 힘이다.

“가능할까?”라는 회의를 “가능하다!”라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힘이다.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비난하지 않고,

운동의 피로감을, 해방에 대한 상상력과 동지들간의 애정과 신뢰로 녹여 버리며,

각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를 조직(집단)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각인의 장점을 조직활동의 풍부함과 활력으로 모아내며,

계급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노동자민중의 숨막힐 듯한 현실을 ‘노동해방·인간해방’의 전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조직.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함께 합시다!